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제로금풍' 자승스님

▶ '함께 해 온 8년' 2~3면

"아주 건강하고 밝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 40여 년 전 자승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느낌이다. 전국 선원에서 정진하던 또래의 수좌들이 만든 '백남회(白衲會)'라는 모임에서였다. 1994년 종단개혁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일했다. 자승스님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한 가지 꼽으라면 그건 친화력이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 밝다는 뜻이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이 있으면 소문내지 않고 남몰래 돕는 것이 많이 보였다. 알다시피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성심껏 도왔다. 가까워서 오래 지켜봐온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결코 겉치레나 이벤트가 아니었음을 잘 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선스님)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떠난다. 2009년 10월31일부터 2017년 10월30일까지, 8년 만의 퇴임이다. '개혁종단 이후 유일한 연임 총무원장'이라는 찬사가 무색하게, 마지막 발걸음은 가볍고 싱거웠다. 마지막 교계 기자간담회에서의 일성은 "소감이 어떤가, 퇴임해서 뭐 할 건가,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것이었다.

"흥"이 많은 분이런 게 첫인상이다.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느 방송에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 불교문화를 많이 알려달라는 당부도 하셨다. 방송에 나가면 불자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도 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후 방송에 나가면 꼭 불자라고 밝히게 된다." (남상일 국악인)

퇴임식을 열을 앞두고 총무원들과 일일이 이별의 합장을 나누며 정답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시원섭섭한 모습이었고 다 내주고 떠나는 모습이였다. 외양만 아니라 실상도 그렇다. 10월초 종단 주요 사업인 승려복지비 비롯한 포교·교육기금, 총무원조합 격려금 등으로 총 2억 원을 보시했다. 8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월급을 한방에 풀었다.

"지난 몇 해간 스님을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것은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꾸밈이 없다는 것이었다." (박홍우 변호사·전 대전고등법원장)

총무원장으로서의 끝자락은 이처럼 매우 조용하고 소탈하다. 그러나 지금만 조용할 뿐이다. 자승스님의 8년은 조계종의 8년이기도 하다. 결코 시간은 그냥 또는 대중 흘러가지 않았다. 일례로 무려 293건의 종법 제·개정은 집행부가 흘린 땀방울의 부피다.

"2011년 불자대상을 받았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당신의 몸을 낮춰 키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았다. 몸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밴 분이라는 걸 느꼈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

하해주며 편하게 대해주셔서 '최대종단의 수장'이라는 거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올해도 장애인에 불자대상을 받았다."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소통과 화합'을 모토로 첫발을 내딛은 자승스님은 종단사 최초의 협치(協治)를 구상했다. 사부대중공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중무행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대중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사찰재정 공개를 이뤄냈고 승려노후복지의 기반을 닦았다. 바르고 열심히 사는 종도라면 끝까지 종단이 보살핀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여러 날 동안 유럽 성지순례를 같이 하면서 나는 가톨릭의 쇄신을, 자승스님은 불교의 쇄신을 이야기했다. 특히 스님들이 재정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

겉치레 이벤트 아닌 친화력 장점 상대방 의견 겸손하게 경청하고 원칙에 충실해... 존경심 갖게 돼 '종도의 한 사람으로' 다시 정진

가 세워지면 좋겠다면서 스님들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들려주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원칙에 충실하려는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렇듯 스님을 중심으로 사부대중은 힘을 모았다. 나이가 세상을 위해 그 힘을 썼다. 스님은 첫 외부일정으로 용산참사 현장위문을 택했다. 앞으로의 조계종은 아프고 서러운 이들을 위해 존재하리라는 상징적 행보다.

"2011년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백두대간에서 하산했을 당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조계종이었다. 중대한 결단을 앞두고 민심의 큰 뜻을 어썬야 할 때면 총무원장 스님을 찾아뵈곤 했던 것 같다. 용산참사 구속자 특별사면에 힘을 보내주시고, 세월호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시고, 작년 겨울 출렁이는 광장 속 민심의 분노를 헤아려주셨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4·16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해산 등 급격악화한 사회적 현안 앞에서 자비는 입증됐다. 절에 쫓겨 오거나 울면서 오는 이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았다. 얼굴 한



"다 내주고 홀연히 떠난다고 해도 그리 아쉽지 않은 뒷모습"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일까. 오랜 도반부터 '예방'이라는 형식적 만남을 가진 이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하는 한 가지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이다. 사진 왼쪽 위부터 조계종 원로의원 보선스님, 국악인 남상일, 박홍우 변호사(전 대전고등법원장), 방귀희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아래는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셉 보라쿠파타 룡구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교장, 영화감독 이창재.

번 본 적 없는 자신을 위해 탄원서를 써준 스님에 대한 이석기 전 의원의 감사편지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던 2013년 11월 당시 의원단은 삭발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였다. 철저히 낙인찍힌 상황에서 어디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단식 중인 몸으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찾아뵈었다. 그날 스님께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답답하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라고 하셨다. 차갑게 얼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셨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난 8년간 종단이 궁극적으로 꿈꾸던 건 화평(和靜)이었다. 보수와 진보, 자본력과 생존권

이 뒤엉킨 아수라장에서 이념에 앞서 인간을 먼저 챙겼고 진정으로 함께 살 길을 모색해왔다. 2015년 연말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함상군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사태'는 자칫하면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종단에서 터질 뻔한 순간이었다. 유력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로 장식한 스님의 절묘한 중재는 공권력과 노동계의 자존심을 모두 세웠다.

"함상군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이유는 조계종이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한 덕분이다. 경찰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서로 힘을 합치고 대화로 해결을 해나갔고, 총무원장 스님이 용단을 내려주셨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법문에서 사부대중공사에서 스님이 늘 강조

해온 개념은 공심(公心)이다. '주지(住持) 불교'를 극복해야만 승가공동체가 복원된다고 당부했고 총무원들에겐 늘 '우리'를 외치게 했다. '오른쪽'에 제일 가깝다는 불교임에도, 촛불민심을 계승해 종교계에선 유일하게 '박근혜 퇴진'을 외친 것도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를 받든 결과다.

"모든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미소로 악수를 건네시고, 한 명씩 따뜻하게 안아주셨다. 그리 격식을 차리지도 않았다. 스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진정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셉 보라쿠파타 룡구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교장)

▶ 4면에 계속

장영성 홍다영 기자

■ 문예공모전 수상작으로 보는 1980년 '10·27법난' 그 날 ▶5~6면

■ 2018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 15면

■ 해제 때 달 곁 없는 스님들 위한 송광사 수행처 건립 불사 추진 17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미대불교조계종주지대)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수행과 대중포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씩 없이 정진하고 계시는 해인동문 스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21일(화) 오후 4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종무다망 하시더라도 모든 선후배 스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_ 11월 21일(화) 오후 4시
장소_ 서울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정기총회 내용_ 1부 강연(안동대 이호걸 교수)
공연(마하무용단 명선화 단장, 김준모 오키나와 연주)
2부 정기총회, 만찬

※제18대 8차 상임위원회는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있습니다. ※각 가 회장 스님과 제18대 상임위원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1(2017)년 11월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 명
(재)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황일면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1319호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전화 02)720-8113 전승 02)738-8113 www.haein.org